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

박영주*

<차 례>

1. 접근의 시각
2.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
3. 감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 송강가사의 가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을 고찰한 다음,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성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성격을 지닌다.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는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능력을 수반한 감각적 정서'로 함축할 수 있다. 감성과 결부된 교육적 논의는 이성 중심의 전통에 새로운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은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 다감한 정서와 곡진한 의미에서 두드러진다. 송강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의식에 철저한 사대부임을 스스러움 없이 진솔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취화된 사물과 연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나아가 정서 형상화 과정에 개재하는 남성적 호방함과 여성적 정밀함을 아울러 실감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해, 보다 풍부한 감성의 세계와 절실한 심회를 실감케 한다. 그리하여 분방한 사고와 절제된 정서 표출을 통해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서술태도를 지향함으로써, 강

* 강릉원주대학교

렬한 현실감과 함께 깊은 정감의 세계를 열어놓는다.

이러한 감성적 특징에 기반한 송강가사의 교육적 가치와 관련하여,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 학습자가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성 교육적 가치라는 두 갈래 관점의 논의가 가능하다.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문화어를 배우는 효과,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기반한 감성 단련의 국면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텍스트 내면화 과정의 감성 교육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투철한 자기인식과 자아실현 의지의 함양, 개성적 형상 창출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의 신장, 체험 공유화 의식과 전통적 요소에 기반한 감성의 확충, 정서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 확장이라는 국면에서 또한 매우 값진 경험이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오늘날 건조한 지식 중심의 교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교육문화 형성에 의미를 시사해 줄 수 있다. 나아가 송강가사가 가사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사문학의 감성 교육적 가치를 살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송강가사, 감성, 감성교육, 문학교육, 정서, 이미지, 형상

1. 머리말

이 글은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을 고찰한 다음,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송강가사가 가사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사문학의 감성 교육적 가치를 살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송강의 문학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논의는 단행본이 40여책,

논문은 600여 편에 이른다.¹⁾ 이 가운데 송강 문학세계의 특징을 ‘감성’이라는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논의는 다만 1편이 있다.²⁾ 그리고 송강문학의 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논의는 <관동별곡>·<훈민가> 등 중등 교과서에 실린 몇몇 작품들의 교수-학습 방안을 고찰한 40여 편의 석사 학위논문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실제로 많지 않다. 물론 이 글에서 문제삼는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여태껏 이루어진 바 없다.

송강 문학세계의 특징을 ‘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기존 논의는 시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의 논자는 송강의 시조가 몸짓의 묘사,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 파행적 리듬과 같은 시적 장치들을 통해 감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특징으로 들었다.³⁾ 또 송강문학의 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논의는, 예의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오늘의 문화적 환경과 학습자의 작품 수용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실효성 높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⁴⁾ 반면 일반논문의 경우는, 송강시조의 문학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살핀 논의⁵⁾를 제외하면 모두 송강가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송강가사가 문학교육에 결부된 여러 문제들과 함께 특히 문학과 일상의 관계를 살피기에 적합하다는 선편적 논의⁶⁾로부터, <관동별곡>의 표현교육 자료로서의 가치와 묘사의 양상

1) 박영주·이지엽·최한선 편저,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고요아침, 2013)의 「부록 : 송강 정철 관련 자료 및 연구논저 목록」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단행본·논문 등의 출간유형으로부터 장르별·주제별 논의유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분류·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서 제시한 목록 이후 2015년 12월 현재까지 단행본은 새롭게 출간되지 않았고, 논문은 10여편이 더 발표되었다.

2) 기존 논의 가운데 ‘감성’과 유사한 개념인 ‘정서’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렇듯 포괄적 범주에서 ‘감성’과 유사한 개념 적용이 가능한 논의를 제외한 경우를 일컫는다.

3) 이형대, 「정철 시조의 감성 표현 양상」,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4) 이 방면의 논문 목록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박영주, 「송강문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 『고시가연구』 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156~157면 참조.

5) 고영화, 「송강 시조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및 교육적 함의에 대한 논의⁷⁾, <관동별곡>을 대상으로 작품이 생산·향유되던 당대의 삶과 정서 및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 양방향 관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⁸⁾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은 대다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송강가사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송강가사가 지닌 감성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송강가사를 위시한 가사문학의 감성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장된 논의 가능성까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의 문제의식과 논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문학·철학·심리학·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문제삼는 감성의 개념적 내포와 외연을 선명하게 파악·설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감성의 개념 정의 자체가 관건이라기보다는, 어떤 국면에서 감성을 문제삼느냐에 따라 그 적용 범위나 양상이 적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감성의 개념적 내포와 외연을 여하히 정립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이를 문학과 교육에 결부된 국면에 한정하여 파악·적용하기로 한다.

감성은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지각과 감정을 수반하는 능력이다. 외계의 대상을 감각하고 지각하여 심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일컫는다.⁹⁾ 이성이 논리적 인식 중심의 정신능력이라면, 감성은 감각적 경험 중심의 정신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성을 일단

6)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7) 염은열, 「표현 교육의 자료로서 본 <관동별곡>」,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2000.

8)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9) 「감성」,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http://stdweb2.korean.go.kr>) 참조.

‘감각적 정서’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인 점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힘이자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일컬을 수 있다.¹⁰⁾ 단순히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소통 과정 속에서 그 현상이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삶을 일구어나가는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능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그런 면에서 또한 감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능력인 감수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은 특징적 면모들로부터 요컨대 감성은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능력을 수반한 감각적 정서’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의 방향을 교육으로 옮겨놓고 볼 때, 감성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이성 중심의 전통에 새로운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성은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능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오늘날 건조한 지식 중심의 교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교육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터기 때문이다.

송강가사는 인구에 회자되며 대대로 우리의 심금을 울려 왔다.¹³⁾ 그렇기에 송강가사 작품에 형성된 감성적 특징과 그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는 오늘의 문화적 환경과 교육적 상황에 적잖은 의미를 시사해 줄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송강가사 작품은 『松江全集』¹⁴⁾에 실려 있는 영인 원문이다.

10) 신현재, 「감성 소통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8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8, 253면 참조.

11) 노상우,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34권 1호, 교육철학연구회, 2012, 83면 참조.

12) 조태성, 『고전과 감성』,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17면 참조.

13) 가사를 포함한 송강의 시가가 인구에 회자되며 대대로 수용된 실상을 수용자의 미적 반응에 근거하여 살핀 논의로는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미적 특질 연구-작품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6을 참조.

1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 『松江全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4. ※이하 작품 인용시 띄어쓰기, 구두점, 행구분과 함께 한자와 병기된 한글을 괄호 속에 묶기로 하며, 인용 대목들 각각의 서지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

송강 정철(1536~1593)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데 남다른 감각과 자질을 가진 작가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나 이를 형상화하는 방식부터가 범상한 듯 범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언어라는 질료와 작가 특유의 감수성이 빚어내는 시적 형상은 풍부한 정감과 아름다움을 자아내면서 그의 시인으로서의 풍모와 개성을 자주 돋보이는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송강의 시조나 한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4음보격 연속체 율문’의 양식을 통해 구조화되는 가사 작품의 사유와 정서적 형상 속에서 두드러진다.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시적 감수성과 형상에 깃든 정서-‘창조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능력을 수반한 감각적 정서’의 특질을 구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특징적 양상을 몇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

가사를 포함한 송강의 시가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動因으로 그때 그때의 심경을 풍부한 현실감각과 함께 형상화하는 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달리 말하면, 당면 현실상황과 관련된 제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이를 진솔한 감정을 담은 언어로써 형상화한다. 다음과 같은 <관동별곡> 첫대목에서 이점을 실감할 수 있다.

江湖(강호)에 病(병)이 곱피 竹林(독림)의 누엇더니
關東(관동) 八百里(팔백리)에 方面(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성은)이야 가디록 罔極(망극)하다

[관동별곡]

‘죽림’ 즉 향리인 담양 창평에 내려가 처사로서의 삶을 누리다가도, 임

금의 부름에 ‘망극한 성은’을 외치며 선뜻 ‘관동 팔백리 방면’인 관인의 길로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노래하고 있다. 이렇듯 송강은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어려운 유가 사대부로서의 이념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귀거래로 통칭된 대자연에 동화된 삶을 동경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조선조 유가 사대부 정신세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송강의 현실 대응태도이자 가치 지향의식이 예사 사대부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경국제민의 이념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일 것이다. 귀거래를 통해 영위하는 삶 역시 나름의 고상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조선조 사대부 사회에서, 본심은 경국제민에 가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구두선처럼 귀거래를 외치는 예사 사대부들과 달리, 그는 벼슬살이의 열망을 참으로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렇듯 솔직한 모습에서 인간적 체취가 배어난다. 송강은 강태공으로 표상되는 그런 虛名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경국제민은 유학의 이념이면서 이를 추구하는 사대부의 생활신조요 현실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가 사대부에게 있어서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곧 현실 도피-은둔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이념과 어긋날 뿐 아니라, 심지어 유가 사대부로서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공자도 “써주면 나아가 내 뜻을 실천하고, 버리면 물러나 깊이 숨는다.”¹⁵⁾라고 했다. 이러한 유가 사대부의 자기정체성에 대해 율곡 이이는 “선비의 兼善(벼슬길에 나아가 교화를 행하는 일)은 진실로 그 원하는 바 이거늘, 물러나 自守(사회현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삼가며 지키는 일)하는 것이 어찌 그 본심이겠는가. 때의 만남과 못 만남이 있을 따름이다.”¹⁶⁾

15) 用之卽行 舍之卽藏 : 『論語』·述而篇

16) 客曰 士生斯世 莫不以經濟爲心 宜乎心迹皆同 而或進而兼善 或退而自守 何耶 主人曰 士之兼善 固其志也 退而自守 夫豈本心歟 時有遇不遇耳 : 李珣, 「東湖問答」, 『栗谷全書·1』 卷15 雜著2(영인: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8, 315면.)

라는 말로 함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송강의 현실 대응태도이자 가치 지향의식은 ‘님’을 간절히 염원하며 그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열망을 노래한 연군가사의 대명사 <사미인곡>·<속미인곡>에도 여실히 투영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성산별곡>을 통해서도 그 두드러진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엇던 디날 손이 星山(성산)의 머물며서
 棲霞堂(서하당) 息影亭(식영정) 主人(주인)아 내 말 듯소
 人生世間(인칭세간)의 도흔 일 하건마는
 엇디 혼 江山(강산)을 가디록 나이 녀겨
 寂寞山中(적막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
 (중략)

人心(인심)이 늦긋트야 보도록 새롭거늘
 世事(세스)는 구름이라 머흐도 며흘시고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꺾장 거후로니
 ㅁ음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언저 風入松(풍입송) 이야고야
 손인동 主人(주인)인동 다 니저브려세라
 長空(당공)의 췌난 鶴(학)이 이 골의 眞仙(진선)이라
 瑤臺月下(요대월하)의 흥혀 아니 만나신가
 손이셔 主人(주인)드려 닐오되 그되 권가 흐노라

[성산별곡]

<성산별곡>의 서두와 결말 대목이다. 주지하듯 <성산별곡>은 춘하추동 사계가 펼쳐내는 성산의 풍광과 정취 속에서 생활하는 山翁-사대부 처사의 모습을 작품의 중심에 두고, 앞뒤 서사와 결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산옹의 생활 모습이야말로 眞仙의 삶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보듯, 송강은 자신이 때로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던 귀거래의 삶을 기린 작품에서조차도 끝내 스스로를 ‘길손’으로 자처한다. 즉, ‘서하당 식영정 주인’으로 표상된 귀거래의 한 양상을 제시하면서,

‘디날 손’을 자처하는 자신은 거기에 잠시 머물러 쉬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대부로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뒤이어 계절에 따라 풍광과 정취를 달리 하며 전개되는 ‘셔하당 식영덩 주인’의 은둔생활을 껍이나 의미있게 기리기는 하지만, 자신으로서는 그런 생활이 정작으로 바라는 삶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용한 작품의 결말 대목에서 이러한 지향의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디날 손’으로 자처하는 송강이 ‘셔하당 식영덩 주인’의 삶에 동경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바로 利慾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낮같은 인심’·‘구름같은 세상사’ 때문이다. 그래서 것처럼 변화무쌍하고 험난한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술잔’을 기울인다. 얼건히 취기가 오르자,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에 맺힌 ‘시름’이 다소나마 풀리는 듯하다. 그리하여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잊어버리고 서로 동화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는 말 그대로 ‘잠시 시름을 달래는’ 것일 뿐, 자신이 곧 ‘진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에서 송강은 ‘진선’의 경지를 ‘셔하당 식영덩 주인’에게 돌리고, 자신은 ‘지나갈 손’임을 거듭 되뇌인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출해 내는 모습을 또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송강은 그의 「水月亭記」라는 글에서, 사대부가 자연으로부터 추구하는 의미를 ‘자연의 맑고도 고요한 흥에 젖는 즐거움’·‘시국을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는 정’¹⁷⁾ 두 가지로 함축한 바 있다. 그가 자연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의 양면이자 시적 정서의 양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곧 그가 생각하는 사대부의 삶이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터다.

자신이 놓여 있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풍부한 현실감과 개성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는 송강의 시각은 껍이나 다채롭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서 형상화 시각으로부터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라는 송강 특유

17) 淸閑寂寞之娛 憂時戀闕之情：「水月亭記」, 『松江續集』 卷2 雜著(앞의 『松江全集』, 85면.)

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렇기에 가사를 포함한 송강의 시가에서는 대상 그 자체일 따름인 객관적 실체로서의 자연까지도 인간적 계기 속에서 인식하고 의미화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강산 만 이천 봉의 절경을 노래하는 <관동별곡>의 “開心臺(기심대) 고터 올라 衆香城(둥향성) 바라보며/ 萬二千峯(만 이천 봉)을 歷歷(녁녁)히 헤여하니/ 봉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人傑(인걸)을 문들고자/ 形容(형용)도 그지 업고 體勢(테세)도 하도 흘샤/ 天地(턴디) 삼기실 제 自然(즈연)이 되 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情(유정)도 有情(유정)흘샤”와 같은 대목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물을 노래하면서도 이처럼 송강은 그 경물이 자아내는 흥취를 인간사와 결부시킨 연상적 이미지를 통해 의미화한다. 무정한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까지도 유정한 인간적 계기 속에서 감지하여 정취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송강은 사대부의 현실적 이념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취화된 사물과 연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풍부한 정감과 더불어 은근한 느낌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서 형상화 방식과 표현 효과를 동반한 감성적 특징에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관동별곡>이 산수유상의 흥취만이 아니라 당대 사회현실에서 요구되는 이념이나 가치를 노래한 것이면서도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유의 일단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송강은 출사와 낙향을 되풀이하는 일 자체가 생애적 특징을 이를 만큼 出處에 우여곡절이 심했던 사대부다. 그러면서 그때그때의 심사를 누구보다도 충실히 작품화한 작가이기도 하다. 송강의 문학은 이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갈등 혹은 화해의 표출이자 그 예술적 승화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는 별다른 꾸밈이나 스스로움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놓인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그리하여 강렬한 현실감과 함께 깊은 정감의 세계를 열어놓는다. 송강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진솔한 감정

표출과 인간적 체취는 작품에 형상된 감성의 특징적 일면이자, 송강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의식에 충실한 사대부임을 헤아릴 수 있는 단면이라 하겠다.

2.2.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

송강의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강렬한 인상을 준다. 바로 눈 앞에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생생함을 자아내기도 하고, 행이 멈추거나 끝나는 곳에서 잔잔한 여운을 느끼게도 한다. 그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표현언어가 빚어내는 감각적 이미지와 청신한 형상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동별곡>에서 ‘폭포’를 묘사·형용하고 있는 대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百川洞(백천동) 겨티 두고 萬瀑洞(만폭동) 드러가니
 銀(은)ᄃᆞᆫ 무지계 玉(옥)ᄃᆞᆫ 龍(룡)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十里(십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중략)

摩訶衍(마하연) 妙吉祥(묘길상) 雁門(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드리 佛頂臺(불등대) 올라흐니
 千尋(천심) 絶壁(절벽)을 半空(반공)에 세여 두고
 銀河水(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ᄃᆞᆫ 플터이셔 뵈ᄃᆞᆫ 거러시니
 圖經(도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관동별곡]

금강산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마주하고 서서 그 기묘한 경관에 사로잡힌 감흥과, 불정대에 올라 ‘십이폭포’의 경이로운 경관을 형용하고 있는 대목이다. 청신하면서도 감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특히 우리말로 이루어진 서술적 표현 어휘들이 빚어내는 미묘한 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장쾌하고도 아름다운 폭포의 형상이 바로 눈 앞에 어리는 듯하며, 그 장관을 마주하고 선 화자의 감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으로 함축할 수 있는 이러한 송강의 감각적 정서는 특히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사실적이면서도 곡진한 표현의 묘에서 두드러진다.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銀ㄹ튼 무지개 玉ㄹ튼 龍의 초리’로 형용한 비유의 참신성과 함께, ‘즈자시니’·‘우레러니’·‘눈이로다’ 등의 서술적 표현어휘들이 빚어내는 미묘한 시적 이미지로부터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십이폭포의 장관을 ‘千尋絶壁을 半空에 세여 두고/ 銀河水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ㄹ티 플터이셔 뵈ㄹ티 거러시니’로 형용함으로써 하나의 구체적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적 특징은 일차적으로 이미지 환기의 대상물들이 지닌 색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묘사 대상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동원됨으로써 하나의 구체적 형상이 창조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경관 묘사와 형용을 통해 연상의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만폭동 폭포·불정대 십이폭포의 장관을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북송의 郭熙는 “시는 형체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체 있는 시”¹⁸⁾라고 하였는데, 위 <관동별곡>의 대목은 한 폭의 眞景山水畫로 일컬어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감각적 묘사와 형용을 통해 청신한 형상을 창출하면서 술회 대상의 이미지를 연상의 공간 속에서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환기하는 수법은 <관동별곡>을 위시한 송강가사의 정서 형상화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감성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물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리고 실제보다 더 즐겁게 우리 눈 앞에 떠올리도록 말의 색깔로 옷입혀진 어떤 생생하고 적절한 묘사”¹⁹⁾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감성적 특징은 작자가 어

18) 詩是無形畫 畫是有形詩：郭熙, 「畫意」, 『林泉高致』

19) 피터 디슨 지음·강대호 옮김, 『修辭法』, 서울대출판부, 1979, 61면.

편 추상적인 논리나 무미건조한 설명을 앞세우기보다는, 분방한 사고와 절제된 정서 표출을 통해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서술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이러한 서술태도 속에서 정태적이거나 장식적인 표현은 지양된다. 정인보는 송강시가의 특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歌詞의 妙는 말을 다 마치지 아니하는 데 있다. 말것으로도 잠자리가 물에 스치듯이 무겁게 가라앉지 아니하는 데 있다. 대개 듣는 이의 톱을 찌르자는 것이 아니요, 그 마음의 애연한 곳에 곱게 맞추려는 것이다.”²⁰⁾라고 한 바 있는데, 바로 이같은 면을 두고 한 말이라 할 것이다.

술회 대상에 대한 감각적 묘사와 형용을 통해 청신한 형상을 창출하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환기하는 이와 같은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은, 대상이 실재하는 공간을 보다 포괄적으로 형상하는 가운데, 그 공간 속에 놓인 화자의 심회와 함께 하나의 정경을 현시하는 데서 개성적 일면을 더한다. <성산별곡>의 다음과 같은 대목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南風(남풍)이 건듯부러 綠陰(녹음)을 헤터내니
 節(절) 아는 괴소리논 어드러셔 오돏던고
 羲皇(희황) 벼개 우희 풋즘을 얼푯 썬니
 空中(공둥) 저즌 欄干(난간) 물 우희 썬 잇고야
 麻衣(마의)를 니미츄고 葛巾(갈건)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보논 거시 고기로다
 흐르밤 비썬운의 紅白蓮(홍백년)이 섯거 피니
 브람의 업시셔 萬山(만산)이 향기로다
 濂溪(렴계)를 마조보와 太極(태극)을 못즘논듯
 太乙(태을) 眞人(진인)이 玉字(옥즈)를 헤헛논듯
 鷗鷺巖(오죽암) 건너보며 紫微灘(즈미탄) 겨티 두고
 長松(당송)을 遮日(차일)사마 石逕(석경)의 안자흐니
 人間(인간) 六月(녹월)이 여기논 三秋(삼추)로다

20) 鄭寅普, 「鄭松江과 國文學」, 『陽明學演論(外)』, 삼성문화문고 11·삼성문화재단, 1972, 202면.

淸江(청강)의 씻는 올히 白沙(백사)의 올마 안자
 白鷗(백구)를 벗을 삼고 즈실 줄 모르나니
 無心(므심)코 閑暇(한가)히미 主人(주인)과 엇더히니 [성산별곡]

<성산별곡> 夏詞 대목이다. 화자는 남풍이 불어 녹음을 헤쳐내는 사이로 계절의 전령사인 ‘피꼬리’가 다시금 찾아왔음을 반기면서, 잠시 ‘꽃잠’을 즐긴 후에 ‘공중 젖은 난간’인 식영정 누대 아래를 흐르는 ‘자미탄’의 물고기를 한가로이 바라보기도 하고, 간밤 빗기운에 화사하게 피어나 온산을 뒤덮는 ‘홍백련’의 향기를 매개로 천지운행의 이법을 잠시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는 건너편 ‘노자암’을 바라보며 솔숲 ‘돌길’에 앉아 맑은 강물 위에 떠 노니는 ‘오리’와 ‘백구’에 동화된 채, 대자연의 품속에서 ‘무심코 한가한’ 삶을 누리는 유유자적한 경지를 노래한다.

자연의 경물과 운행질서와 거기에 동화된 화자의 심회가 어우러져 아늑하면서도 조화로운 정경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산 여름날의 정경은 그 정경을 구성하는 事象들에 대한 감각적 묘사와 형용을 통해 역시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을 환기한다. ‘식영정’·‘노자암’·‘자미탄’ 등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곳 모두가 담양 창평 성산이라는 공간에 실재하는 구체적 지형지물들인 데서 그 현장감은 배가된다. 그러면서 이 대목은 특정 사물이나 개별 경관보다는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정경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묘미를 자아낸다. 그리하여 성산에 깃들어 사는 이의 지향의지와 가치의식, 그 정서적 형상을 예의 추상적인 논리나 관념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도 감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시적인 이미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려면 우선 대상의 實在性을 인식하고 동시에 거기에 어떤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동별곡>에 등장하는 만폭동 폭포나 불정대 십이폭포의 형상, <성산별곡>에서 노래하는 식영정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의 형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송강 특유의 감성이 투영된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은 곧 대상의 실재성으로부터 촉발된 주관적 감흥을 직관적 정서로써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감성적 시각에 시인의 눈에 포착된 개성적 제재가 결합됨으로써, 술회 대상으로부터 환기되는 미적 정서적 형상들은 특유의 개성으로 빛을 발한다.

그런 면에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을 환기하는 데 관여하는 개성적 제재들이다. 송강가사에 등장하는 개성적 제재의 층위는 실로 다채롭지만, 우리 고유의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전통 및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事象들이 정서 형상화의 매개물로 관여하는 경우야말로 송강가사를 대표하는 예라 할 수 있다.

鏡浦吟詠으로 일컬을 수 있는 <관동별곡>의 “斜陽(샤양) 峴山(현산)의 躑躅(적적)을 으니블와/ 羽蓋芝輪(우개지륜)이 鏡浦(경포)로 내려가니/ 十里(십리) 氷紈(빙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松(당송) 울흔 소개 슬꺾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와 같은 대목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울창한 숲과 함께 길게 펼쳐진 경포 백사장을 형용한 이 대목은 우리 전래의 습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미질과, 햇볕에 희게 바래기 위해 펼쳐 놓은 베를 곧바로 연상케 한다. 우리의 토속적 정서와 전통적 생활감각을 전혀 색다른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는 그 감성적 이미지는 특히 ‘다리고 고터 다려’·‘슬꺾장 퍼더시니’라는 우리말 표현에서 두드러진다.²¹⁾

이처럼 우리의 풍토성을 이미지 환기의 매개물로 활용하여 참신한 미감을 창출하고 있는 점은 예사 사대부들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송강 특유의 개성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경포음영’을 위시하여, 송강의 작품들 가운데에는 우리 고유의 생활감각과 역사·문화적 요소에 관련된 형상, 즉 토속적 제재와 풍토성에 뿌리를 두고서 이를 형상화한 예

21) 최진원은 이와 같은 시적 형상성에 내재해 있는 송강의 감성과 이미지의 독창성을 “人間風情이 물씬 풍긴다.”·“<관동별곡>의 山水遊賞에는 인간풍정-인간적 계기의 토양이 깔려 있다.”라고 논의한 바 있다. 최진원, 『松江詩歌의 風流』,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균관대출판부, 1986, 140·143면.

들이 적지 않다.²²⁾ <관동별곡>을 위시한 송강가사가 절창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일단을 이와 같은 토속적 제재와 시적 이미지의 형상성에서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토속적 제재와 풍토성에 뿌리를 두지 않고서는, 언어 공동체이자 문화 공동체인 민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것처럼 널리 정서적 공감의 세계를 열어 나가기 어려울 터기 때문이다.

‘시인은 형상으로 사고한다.’·‘시는 형상에 깃든 사유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의 특성은 구체적이고 개성이 풍부한 시인의 정감을 바탕으로 ‘감성적 형식을 통하여 재현된 영상’을 언어화하는 데서 두드러진다.²³⁾ 그렇지 않을 경우 거기에는 다만 이념이나 교훈을 설파하는 데 따르는 象徴과 寓意가 있을 따름이다. 송강가사는 왕왕 이념적·교훈적 색채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의 하나로 일컬어 손색이 없는 표현언어가 빚어내는 감각적 이미지와 청신한 형상, 대상의 실재성으로부터 촉발된 주관적 감흥을 직관적 정서로써 표출함으로써 환기되는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이러한 감성적 시각 및 이미지화 과정에 관여하는 개성적 제재들은 이러한 인식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3. 다감한 정서와 곡진한 의미

송강의 시가는 흔히 활달·호방한 정서로 대변되지만, 이와 대조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는 섬세·애절한 정서 역시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개성을 대변하는 특징으로 일컬어 손색이 없다. 전자를 남성적 호방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여성적 정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넘어 성권롱집에>와 같은 시조나 <관동별곡>에서 도도한 취흥과 함께 현실초탈의 경

22) 이러한 송강시가의 제재적 정서적 특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영주, 「<관동별곡>의 시적 형상성」, 『반교어문연구』 5집, 반교어문학회, 1994;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5집, 한국시가학회, 1999를 참조.

23) 蔣孔陽 지음·文一平 옮김, 『形象과 典型』, 사계절, 1987, 30·134·137면 참조.

지를 노래하는 대목이 남성적 호방함을 대표한다면, <내 한낫 산김적삼>과 같은 시조나 <사미인곡>에서 연모하는 님에게 갖은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정을 노래하는 대목은 여성적 정밀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송강시가에 형상화된 정서는 다감한 면이 있다.

송강가사에 두드러진 남성적 호방함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를 통해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여기에서는 여성적 정밀함을 실감할 수 있는 <사미인곡>·<속미인곡>을 중심으로 논의를 펴기로 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미인곡>은 ‘미인-님’을 그리는 절절한 정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꾸어 노래한 가사다.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에게 드리고 싶은 정성을, 그 님이 받아들일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간곡하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적 정밀함으로 표본이라 일컬을 수 있는 한 대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썰렸는디
 羅幃(나위) 寂寞(적막)하고 繡幕(슈막)이 뷔여 잇다
 芙蓉(부용)을 거더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긋득 시름한디 날은 엇디 기똥던고
 鴛鴦錦(원양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品(슈품)은 크니와 制度(제도)도 ㄱ줄시고
 珊瑚樹(산호슈) 지게 우히 白玉函(빅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넘겨신디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里萬里(천리 만리) 길히 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사미인곡]

쌓이는 시름과 고통을 달래가며 긴긴 여름날 빈 방을 지키면서 임에게 비단옷을 곱게 지어 드리고자 하는 정성이 절절이 배어 있는 대목이다. 임이 부재하는 현실, 견디기 어려운 고독감을 배경으로, 임을 그리는 간절

한 심회로부터 곡진한 의미가 우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행간 너머에서 우아한 여인의 자태와 은은한 향취가 풍겨나온다. 그렇기에 남성 작가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섬세·애절한 정서가 어느 대목보다도 탁월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자신의 인격적 분신인 작중화자-여인의 목소리로부터 풍겨나오는 우아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다만 연군의 정이나 남녀 간 상사의 정을 노래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자연스럽게 뛰어 넘어 그 이상의 정감과 상상의 세계를 열어놓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우아한 아름다움은 송강 특유의 문학적 감수성의 발로이자 ‘사대부로서의 정신적 높이를 표상’²⁴⁾하는 것일 수 있다. 연군의 정을 노래한 송강의 작품들이 절창으로 일컬어지며 후대에까지 널리 애창된 이유의 일단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요컨대 연군의 정이 인간의 보편적 사랑-그 애절한 연가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의식의 내면 깊숙히 잠재해 있는 감성을 자극하여 마침내 정신을 고양시키는 미적·정서적 체험, 그 가능성까지를 열어 놓기 때문일 것이다.

‘님’을 노래하는 송강의 목소리는 이렇듯 섬세하고 애절한 여성적 분위기를 풍기기에 그만큼 정서적 호소력이 짙다. 그런 면에서 ‘지극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라는 괴테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송강은 누구보다도 이 말의 의미와 깊이를 터득하고 이를 작품으로 실현한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사미인곡>을 위시한 송강의 시가에서 섬세·애절함에 바탕을 둔 여성적 정밀함을 실감하는 일은 색다르면서도 예사로운 경험이다. 남성 작가에게서 이런 정서를 실감하는 일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이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기에 색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예사롭다는 것은 이같은 정서가 송강 시가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양상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는 사실

24) 성무경, 「가사의 존재양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7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적 정밀함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이는 근원적으로 남성에게 내재된 원초적 감성으로서의 여성성을 의미하는 아니마(anima)의 투영이자, 진정성을 동반한 송강의 긴절한 심회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렇듯 긴절한 심회를 형상화하는 언어구조체로부터 특유의 정감이 깃든 곡진한 의미가 환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강의 시가에서 이와 같은 긴절한 심회와 곡진한 의미를 실감할 수 있는 예는 어느 경우보다도 연군의 정을 형상화한 작품들에 오롯이 녹아 있다. 시조·가사·한시 등 송강시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주제의식의 하나가 바로 연군의 정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연군’은 유가 사대부라면 으레 표방하는 정서다. 율곡이 말하는 ‘때의 만남과 못 만남’이 있을 뿐,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그 체제의 정점에서 서 있는 임금을 받들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신하된 자의 당연한 감정이자 도리일 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강의 경우는 그 정이 유별나게 깊고 간절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로운 신하’의 처지에서 멀리 궁궐에 계시는 ‘임’을 그리워하는 정은 무엇에도 견주기 어려울 만큼 섬세·애절하다. 송강은 이를 주로 사랑하는 지아비를 이별한 여인의 심경에 가탁하여 형상화했는데, 그 정서 형상화의 매개물로는 위에서 인용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극히 여성적인 분위기와 정감을 자아내는 물상들을 두루 등장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대부 남성 작가의 작품임에도 話者를 여성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두 여성의 대화체 방식까지를 취하고 있는 작품의 존재다. <속미인곡>의 존재가 바로 그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만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上(턴상) 白玉京(빅옥경)을 엇디호야 離別(니별)호고
 히 다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혼가마는

(중략)

글란 싱각 마오 댁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그튼 얼굴이 편흐실 적 몇날일고

(중략)

출하리 식여디여 落月(낙월)이나 피야이셔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속미인곡]

<속미인곡>은 헤어져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작자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두 여성화자를 등장시켜 대화체 형식으로 엮어나간 작품이다. 님을 이별한 처지에서 느끼는 자책과 고독감과 재회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님이 자신을 어서 다시 불러주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간절한 그리움과 애타는 심정으로 노래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그러한 심경을 님에게 전할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펴낸 연가이자 연군가다. 작품 내용이나 전개 및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작품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주제적 측면에서는 전편인 <사미인곡>과 맥락을 같이한다.

<속미인곡>은 두 여성화자 간 대화의 교체에 있어서 한 여인은 ‘각시’로서 작품 대부분의 내용을 진술해 나가는 주역이며, 상대 여인은 이러한 ‘각시’로 하여금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과 생각들을 펴 내도록 유도하거나 매듭짓는 짙막한 사설만을 내놓는 보조역이다. 이같은 두 여성의 대화체 형식을 통해 <사미인곡>에서 미처 토로하지 못한 말과 못다 펴낸 생각을 중심으로 이른바 연군의 정을 더욱 섬세하고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구절구절에 등장하는 물상과 이미지들로 하여 이별의 처지에서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하소연하는 화자(작자)의 심경이 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상들이 자아내는 정감과 곡진한 의미들로 하여 화자(작자)에게 同化의 감정을 갖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공감의 문을 열고 들어서게 하는 효과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속미인곡>이 <사미인곡>을 능가하는 정서적 호소력을 지닌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히 두 여성화자를 등장시켜 사설을 전개해 나가는 대화체 형식, 즉 화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닌 묘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연군의 정을 넘과 이별한 상황에 놓인 여인의 애달픈 심경에 가탁하여 노래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으면서도, <사미인곡>과 같이 서정적 자아의 독백 형식으로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속미인곡>의 경우는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 형식으로 전개시켜 나간 점이 보다 참신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간절한 느낌과 함께 정서적 호소력이 짙게 풍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송강의 시가 문학,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말 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져 온 가사작품들은 다양한 성격의 화자가 등장한다는 점에 매력의 한 요인이 있다. 화자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곧 서술방식이나 표현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작자가 절실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나 정서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그만큼 다채롭고도 풍부한 어조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산별곡>에서 한 사람의 길손을 등장시켜 서하당 식영정 주인의 격조 높은 풍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관동별곡>에서 작자 자신이 화자가 되어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과 흥취를 박진감 넘치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일 터다. 그러나 특히 <사미인곡>에서 ‘우아한 사대부 집안 여성’의 목소리를, 그리고 <속미인곡>에서는 ‘각시’와 상대역 여인의 대화에 깃든 ‘소박한 서민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옴으로써, 그 개성적 어조와 화법의 묘미를 더하고 있는 점은 각별하다. 이처럼 <속미인곡>을 위시한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각기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화자들을 등장시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흥 혹은 정서를 곡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듯이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표현언어가 빚어내는 다채로운 시적 이미지와 함께, 정서 형상화 과정에 개재하는 남성적 호방함과 여성적 정밀함을 실감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해, 보다 풍부한 감성의 세계와 절실한

심회를 절감케 한다. 이를 다감한 정서와 곡진한 의미로 함축할 수 있다 하겠는데, 이러한 면모 또한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으로 일컬어 손색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성적 특징은 송강이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작가임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3. 감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 송강가사의 가치

문학은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삶의 진실에 대한 인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형상을 언어화하는 것, 즉 ‘형상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학문과 예술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지닌다.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면서 향유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학을 향유하는 데 따르는 여러 방법과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바로 이 점에서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학 교육은 이러한 전제가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는 가운데 의도하는 바 학습자들로 하여금 형상적 인식의 실상을 느끼고 깨달으며 즐기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자기화 과정에 소요되는 방법과 절차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문학 교육의 방향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교육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감성 교육은 매우 유용한 관점과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감성 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견해는 주목을 요한다.

학생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어 그 자신의 본질 안에 있는 감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감성교육이란 말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감성교육이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느낌을 타인의 입장에서 듣

고 이해하는 공감적 능력, 그리고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어떤 행동이 최선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²⁵⁾

감성에 기반한 미학적 사유능력과 그 실천적 양상 및 태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감성 교육의 개념으로부터 의미와 가치를 잘 함축하고 있다. 특히 감성 교육이 가져오는 학습자 자신의 감정 인식능력과 표현능력은 물론, 타인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는 공감적 능력의 신장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보다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학습 대상이나 내용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제는 교육의 영원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습 대상인 텍스트 이해와 향유에 학습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접근하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돕는 데 있다.

감성을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능력을 수반한 감각적 정서’라고 할 때, 앞장에서 살핀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에 기반한 감성 교육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두 갈래 관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나는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성 교육적 가치이다. 전자가 작품 이해의 국면에 대응된다면, 후자는 작품 향유의 국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에서는 두 관점이 동시에 관여할 터지만, 이러한 양면의 관점에 입각할 때 송강가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오늘의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으리라 본다.

25) 노상우, 앞의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84면.

3.1.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

3.1.1.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문화어를 배우는 효과

송강이 생존·활동하던 당대의 문학인들 뿐만 아니라 이후 오늘의 문학인들까지도, 송강가사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문학일 수 있음을 주목·강조한 이유로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말 표현에 담긴 사고와 정서를 한층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거기에 예술적 미감이 깃들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대로 적잖은 논평이 이루어져 온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예사 문인들의 작품과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미적·정서적 체험을 훨씬 더 깊고 감칠맛나게 한다.

그러나 송강가사를 교육의 대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이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말 표현 부분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통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적지 않은데다, 특히 典故로 대변되는 고사성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고의 절창’이라는 말은 전공자들 사이에서만 공감될 뿐, 대다수 학습자들에게는 거의 공허한 외침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의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송강가사를 현대어로 표기해야 온당한가? 이는 한마디로 고전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언어도단이다. 작품을 이해하고 향유하기보다는 그저 내용이나 개략적으로 알면 그만이라는 단세포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송강가사 음미에 결부된 요소들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이해와 교육적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합목적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터다.

문학이 문학일 수 있는 제1의적 요소가 언어인 점에서, 전고를 포함하여 문학 텍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언어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요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송강가사를 제대로 이해·향유하기 위해서는 전고의 해독을 포함한 별도의 지적 교양을 갖추어

야 한다. 교육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이같은 지적 교양이 쌓일수록 보다 고급스러운 작품의 맛을 느끼면서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전고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작품 자체가 고급스럽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송강가사의 경우는 이러한 전고 해독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관동별곡>에서 淮陽의 지명과 관련하여 汲長孺 고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송강의 牧民官으로서의 의지를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소재적 차원의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단순한 用事에 머물지 않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문맥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시적 소재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고사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어떤 호사가적 기질이나 사대부적 교양의 과시로서가 아니라, 당대인들의 잠재된 교양을 전제로 그 이해의 자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상적 이미지의 창출과 관련된 문학적 수법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 뿐만 아니라 <관동별곡>에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지명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소재로 하거나, 향토적인 정조를 불러 일으키는 감각적인 분위기와 전래의 고사 및 일화 등을 소재로, 우리 고유의 풍토성을 형상화한 대목들이 많다.²⁶⁾ 이러한 대목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관동별곡>을 해독했다고 할 수 없으며, 작품의 향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은 <관동별곡>에 국한되지 않고 <성산별곡>·<사미인곡>

26) 이종목은 “특정한 사물이나 지명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에 연결되어 독자로서 하여금 문면에 벗어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송강가사의 한 특징이다.……<관동별곡>은 어느 지역을 지나면서 지리적 특성이나 지명 등을 매개로 하여 송강의 주관적 정서가 표출되는 특징을 가진 작품이다.”라고 한 바 있다. 적절한 지적이다. 이종목, 「<관동별곡>을 읽는 재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집문당, 1992, 672~673면.

· <속미인곡>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학습[배움]은 학습자가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만나 자신의 이해 지평을 넓히는 창조적인 행위다. 이러한 ‘학습’의 본질에 비춰볼 때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육적 사태이며, 학습자들이 그 어려움을 주체적으로 극복하였을 때 고전문학의 재미나 즐거움 또한 경험할 수 있다.”²⁷⁾라는 견해는 지극히 온당하다.

우리말 고어를 포함하여 전고로 대표되는 고사성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일종의 文化語다. 송강가사 내용을 제대로 해독하고 음미하는 일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문화어를 배우는 효과와 함께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매우 값진 경험이다.

3.1.2.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기반한 감성 단련

고전문학 교육의 구체적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전문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 관습과 언어성, 장르·구조 등에 내재된 미학적 특성, 역사적 삶의 형상으로 이름지을 수 있는 당대인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그들의 사유방식과 현실인식의 면모를 대사회적 문화적 요인들과의 관련 속에서 살피는 일 등을 대체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 가운데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사의 문학적 관습 및 양식이 빚어내는 미학적 특성이다.

가사는 ‘4음보격 무제한 연속체 율문’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2음보의 중첩적 전개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규칙성으로 말미암아 유장하고 확장적인 문체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체를 통해 생각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균형유지의

27) 염은열, 「고전문학 ‘학습’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37~38면.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에, 감정의 균형 있는 조절과 확산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4음보격 연속체 율문의 율격적 질서가 주는 외형적 균제와 내재적 표현의지가 交應되면서 미적·정서적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송강가사는 탁월한 미학적 효과를 발휘한다. <관동별곡>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앞장에서 살핀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노래하는 대목 직전의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이어서 산수유상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펴내는 대목으로부터 목적인 장소인 ‘만폭동 폭포’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나타내면서 시상을 급박하게 전개하고, 이어지는 ‘만폭동 폭포’를 마주하고 선 대목에서는 하나의 경관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 경관을 다양하게 묘사·형용함으로써 시상의 완만한 흐름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단면이다. 4음보격 연속체 율문의 율격적 질서가 주는 외형적 균제와 내재적 표현의지를 교응시키면서 감정의 완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의 양식적 특성과 미학적 효과는 성산의 다채로운 풍광과 정취 속에서 생활하는 사대부 처사의 모습을 노래한 <성산별곡>, 님 그리는 정 및 님에게 드리고픈 정성을 노래한 <사미인곡>에서, 시간의 추이에 따른 춘하추동 네 계절의 물상과 정경 및 심회를 다채롭게 그려냄에 있어서도 결정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4음보격 연속체 율문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렇듯 다채로운 事象들을 유장하게 펼쳐 나가면서 감정의 균형 있는 조절과 확산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애절한 심정을 두 여성화자를 등장시켜 대화체 형식으로 전개해 나간 <속미인곡> 역시 이러한 가사의 양식적 특성과 미학적 효과가 결정적 요소로서 관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송강가사는 가사의 문학적 관습 및 양식이 빚어내는 미학적 특성이 빛을 발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작품 해독과 음미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통해 환기되는 미적·정서적 형상들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감성을 단련하는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2. 텍스트 내면화 과정의 감성 교육적 가치

3.2.1. 투철한 자기인식과 자아실현 의지의 함양

문학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에 놓이는 것은 작품을 분석·비평하면서 그것을 自己化하는 일련의 감상활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전제를 충실히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예컨대 작품읽기라든가 비평 혹은 연구하는 일 또 작품을 창작하는 일 등 모든 문학행위의 출발점은, 자신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련의 지적·정서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감수성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과 체험 속에서 길러진다. 고전문학 교육 역시 이러한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바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전문학 작품을 직접 읽고 스스로 분석·비평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삶은 어느 시기 어느 국면에서건 욕망과 이상실현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하게 움직이는 것이 곧 저마다의 삶이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투철한 자기인식과 자아실현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의 하나로 일컬을 수 있는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는 바로 이와 같은 투철한 자기인식과 자아실현 의지의 소산으로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송강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의식에 충실한 사대부의 한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송강의 문학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갈등 혹은 화해의 표출이자 그 예술적 승화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는 별다른 꾸밈이나 스스로움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놓인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유가 사대부의 이상인 경국제민의 이념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벼슬살이의 열망을 참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단면이다. 그리하여 강렬한 현실감과 함께 깊은 정감의 세계를 열어놓는다.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의 하나로 일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로부터 우리는 새삼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다.

이러한 계기는 “오늘날의 시인·작가들이 삶과 피를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몇 세기 전의 문인들도 시대적 환경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삶의 짐을 그 시대의 화법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비상하게 흥미로우며 감명 깊은 교육적 체험이다.”²⁸⁾라는 말에 잘 담겨 있는 것처럼, 송강의 가사작품들을 해독하고 음미하는 이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감화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감화는 “우리의 삶이 공시적 필요성 못지않게 통시적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관한 성찰”²⁹⁾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송강가사를 위시한 문학 작품은 각 시대마다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환경에 놓인 작자의 현실 대응방식이자 그 언어적 형상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결국 수용자의 몫이다. 더욱이 문학 작품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현재화되며, 삶의 총체성과 깊은 연관하에 놓인다. “문학은 특정 작자에 의한 창조물이지만, 그 속에는 현실의 반영을 비롯하여 풍속, 종교,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작품 자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 과정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즉 문학의 감상은 단순히 작품 문면의 이해나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독자와 현대의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총체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³⁰⁾라는 견해가 이를 잘 말해준다.

28)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통권3호, 1992·봄, 53면.

29)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156면.

30)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 『비평문학』 32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390면.

문학 교육은 학습자 자신이 작품 해독과 음미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일련의 지적·정서적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감성을 풍부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투철한 자기인식과 자아실현 의지를 함양하는 텍스트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감성 교육적 가치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3.2.2. 개성적 형상 창출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의 신장

문학 텍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표현언어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정서적 관련이다. 그것은 형식이나 내용 자체보다는 표현언어가 환기하는 이미지와 형상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적 이미지와 형상은 언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언어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가사 작품들이 환기하는 시적 이미지와 형상은 대부분 강렬한 인상을 준다. 특히 감각적 이미지에 의한 청신한 형상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여 참으로 신선한 미적·정서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환기하면서 연상의 공간을 다채롭게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적 이미지와 형상 창출은 송강가사가 지닌 감성적 특징의 일면이자, 송강의 시인으로서의 개성이 돋보이는 일면이다. 그리고 이러한 면모는 특히 대상의 실재성으로부터 촉발된 주관적 감흥을 직관적 정서로써 표출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송강가사에 다채롭게 등장하는 시적 이미지나 형상은 대부분 어떤 추상적인 논리나 설명을 앞세우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화 과정에 관여하는 제재의 실재성을 포착하여 이를 개성적 언어로써 현시하는 데서 참신성을 지닌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을 해독하고 음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체험들 가운데, 이렇듯 개성이 돋보이는 이미지와 형상을 창출하는 데 관

여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 또한 유의미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예컨대 <관동별곡>에서 화려하고도 웅장한 ‘망고대’와 ‘혈망봉’의 자태를 “늘거든 썩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 芙蓉을 고갯는 듯 白玉을 못갯는 듯 / 東溟을 박츠는 듯 北極을 괴왓는 듯”으로 묘사·형용하는 대목은 어법과 수사와 의미가 동시에 관여하는 가운데 개성적 이미지와 형상이 창출되고 있다. 이렇듯 생동감 넘치는 묘사와 형용을 통해 ‘망고대’와 ‘혈망봉’의 활원한 기상을 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은 애정을 쏟은 만큼 그 내밀한 실상을 드러내며, 또 거듭해서 읽고 음미하는 가운데 문학적 감수성이 길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고전시가가 보여주는 표현법은 당대는 물론이고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 바로 지금의 문학이 아닌 고전문학 표현이 지닌, 이러한 보편성의 발견 내지 보편성의 확인으로 이어질 때의 기쁨 또한 우리가 고전을 살피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과거와 연결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나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보편적인 표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³¹⁾라는 견해는 고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학습과의 연관 속에서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에는 개성적 이미지와 형상 창출에 결부된 다양한 사례들이 현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 다양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해독하고 음미하면서 문학적 감수성을 기쁨으로써, 어느 시점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개성이 발현된 주체적 이미지와 형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 또한 신장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1)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65면.

3.2.3. 체험 공유화 의식과 전통적 요소에 기반한 감성의 확충

고전문학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에 대한 관심, 이러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주체적 시각을 확립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는 크게는 우리 민족문화의 전개와 정수를 이해하고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 그리고 민족적 주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는 일 등의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전통의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복고주의에의 함몰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문학 작품을 통해 표출된 당대인의 삶과 표현언어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사유방식·가치관·현실인식의 면모들을 대사회적 문화적 요인들과의 관련을 통해 살피는 경우, 그것을 일반문맥의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풍부한 정감의 세계를 각기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예컨대 <관동별곡>에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지명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소재로 하거나, 향토적인 정조를 불러 일으키는 감각적인 분위기와 전래의 고사 및 일화 등을 소재로, 우리 고유의 풍토성을 형상화한 대목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성산별곡>에서 성산 주변에 실재하는 지형지물들을 다채롭게 묘사·형용하거나, <사미인곡>·<속미인곡>에서 우리의 전통 규방문화를 실감할 수 있는 事象들을 섬세한 정감과 함께 형상하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을 해독하고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 이렇듯 풍토성에 기반한 민족 고유의 정서와 정감의 세계를 환기하는 요소들을 追體驗하는 일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작품의 제재로 삼아 작가 특유의 시적 이미지와 형상을 창출하는 과정에 개재하는 정신적 국면이야말로 고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관동별곡>에서 산수유람의 흥취를 노래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관동지방 곳곳의 풍광·풍물·고사·일화·유물·유적 등을 노래하는 송강의 의식 속에는, 우리 국토산하를 자신의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고 감성의 양식으로 삼은 어떤 정신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의 문집을 들추어보면 산수유람과 관련된 詩文이 없는 경우란 극히 드물듯, 국토산하를 유람하며 각 지역의 풍물과 정취 등을 소재로 시를 짓거나 글을 남기는 일은 전통시대 선비들의 기본소양이자 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산수는 단순한 자연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생겨난 터전이었으며, 자신의 인격과 도덕적 완성의 대상이자 토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산하에서 느끼는 감흥이나 철학적 사유를 시나 산문으로 작품화하거나, 혹은 여행기처럼 글을 짓게 된 구체적 과정까지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산수유람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예사롭지 않은 경험 이상의 어떤 정신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관동별곡>을 위시한 산수유람의 시문들은 저마다 감성의 양식으로 삼은 우리 국토산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또다른 감성적 양식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적 양식에는 요컨대 자신의 체험을 공유화하려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오늘날 탐방객들이 ‘남는 것은 사진’이라는 외마디 말과 함께 탐방지의 감동적 체험을 사진기에 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신의 체험을 공유화하려는 가치의식을 내포한 철학적 실천의 결과였던 것이다.

우리는 송강의 <관동별곡>을 위시한 가사작품들을 해독하고 음미하면서, 우리의 풍토성에 기반을 두고 환기되는 시적 이미지와 형상들로부터 민족 고유의 정서와 정감의 세계를 추체험한다. 이러한 추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감각적 정서를 보다 풍부히 확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의 역사성을 새삼 자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3.2.4. 정서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 확장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우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의 양상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 층위 또한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터다.

문학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바 작품을 통한 인간 이해라는 궁극적 목표와 의의는, 예컨대 대상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 또는 어떤 심정적 상황의 표출이며, 그것은 사람살이의 蓋然性 속에서 어떤 공유분모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주의깊게 살피는 데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란 가장 범박하게 말할 때 ‘살아가는 이야기’이며, 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어떤 장치와 구도를 통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을 사람살이의 개연성 속에서 이해하고 향유하는 데 참다운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강의 시가는 흔히 활달·호방한 정서로 대변되지만, 이와 대조적 성향이라 할 수 있는 섬세·애절한 정서 역시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개성을 대변하는 특징으로 일컬어 손색이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전자를 남성적 호방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여성적 정밀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송강의 가사작품들 역시 이러한 정서의 양면을 지닌 경우로 양분할 수 있는데, <관동별곡>·<성산별곡>이 남성적 호방함이 두드러진다면, <사미인곡>·<속미인곡>은 여성적 정밀함이 두드러진다.

다감한 정서로 함축할 수 있는 송강가사의 이와 같은 특징은, 정서 형상화 과정에 개재하는 남성적 호방함과 여성적 정밀함을 실감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해, 보다 풍부한 감성의 세계와 절실한 심회를 실감케 한다. 그리하여 각 작품마다 개성적 이미지와 형상들을 통해 곡진한 의미를 환기함으로써, 동화의 시선과 함께 공감의 지평을 확장한다. 송강가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격의 ‘화자’ 또한 곡진한 의미를 환기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율곡 이이는 『시경』의 시 전반을 일컬어 “人情에 曲盡하고 物理에 두루 통달했다.”³²⁾라고 평한 바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시경』의 시는 근대 이전의 문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典範이었거니와, 시가 무엇보다도 ‘인정에 곡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율곡의 시각으로부터 우리는 정서적 감화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서적 감화는 곧 경험적 진실과 상통하며, 공감의 지평을 확장하는 관건일 터기 때문이다. 물론 율곡의 이 말은 시가 정서뿐만 아니라 窮理에도 절실한 것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에 곡진’해야 함을 우선으로 놓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시가 ‘인정에 곡진’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볼 때,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실감할 수 있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기쁘고 슬픈 곡절, 간절한 그리움과 애달픈 심사, 호쾌한 낭만과 섬세한 정감 등이 예의 남성적 호방함을 대변하는 활달·호방한 정서, 여성적 정밀함을 대변하는 섬세·애절한 정서를 통해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작품을 해독하고 음미하는 이로 하여금 문학적 사실보다는 문학적 진실을 체험케 함으로써, 정서적 감화력과 함께 공감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게 한다. 물론 송강의 가사작품들이 환기하고 있는 정서나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부합하지 않는 국면들 또한 당연히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작품에 형상화된 당대의 정서나 의미 자체가 아니라, 사람살이의 개연성 속에서 이해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정서와 의식세계다.

32) 三百篇 曲盡人情 旁通物理：李珣，「精言玄少選序」，『栗谷全書』卷13 序，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78，269면.

4. 맺음말

교육은 학문적 탐구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다양한 시각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는 바, 이러한 성과는 교육을 통해 비로소 실질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며, 다시 교육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학문과 교육의 심화를 모색하게 되는 순환적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을 연구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학문적 성과의 축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이해·향유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과 실례들을 가능한 한 풍부히 확보하는 노력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능력을 수반한 감각적 정서’로 함축할 수 있는 감성의 개념을 토대로, 송강가사가 지닌 감성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송강가사의 감성적 특징은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 청신한 형상과 생생한 현장감, 다감한 정서와 곡진한 의미에서 두드러진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작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갈등 혹은 화해의 표출이자 그 예술적 승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강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의식에 철저한 사대부임을 스스로 의심 없이 진솔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취화된 사물과 연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추상적인 논리나 무미건조한 설명을 앞세우기보다는, 분방한 사고와 절제된 정서 표출을 통해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서술태도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강렬한 현실감과 함께 깊은 정감의 세계를 열어 놓는다. 또한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표현언어가 빚어내는 다채로운 시적 이미지와 함께, 정서 형상화 과정에 개재하는 남성적 호방함과 여성적 정밀함을 아울러 실감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해, 보다 풍부한 감성의 세계

와 절실한 심회를 절감케 한다.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작가가 송강임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감성적 특징에 기반한 송강가사의 교육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텍스트 이해와 향유에 학습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와, 학습자가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성 교육적 가치의 두 갈래 관점의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문화어를 배우는 효과, 가사의 양식적 특성에 기반한 감성 단련 면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은 우리말 표현에 담긴 사고와 정서를 한층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거기에 예술적 미감이 깃들게 했으며, 우리말 고어를 포함하여 전고로 대표되는 고사성어를 해독하고 음미하는 일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함께 일종의 문화어를 배우는 효과를 불러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강가사는 가사의 문학적 관습 및 ‘4음보격 무제한 연속체 율문’이라는 양식이 빚어내는 미학적 특성이 빛을 발하는 예라는 점에서, 텍스트 해독과 음미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통해 환기되는 미적·정서적 형상들을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감성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텍스트 내면화 과정의 감성 교육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투철한 자기인식과 자아실현 의지의 함양, 개성적 형상 창출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의 신장, 체험 공유화 의식과 전통적 요소에 기반한 감성의 확충, 정서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 확장 면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송강의 가사작품들이 환기하는 바 작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의식에 철저한 사대부임을 드러내는 진솔한 감정표출과 인간적 체취, 감각적 이미지가 빚어내는 청신한 형상과 대상의 실재성으로부터 촉발된 생생한 현장감, 풍토성에 기반한 민족 고유의 정서와 정감의 세계를 환기하는 요소들, 활달·호방한 정서와 섬세·애절한

정서로 대변되는 남성적 호방함과 여성적 정밀함이 지닌 감화력 등이 이러한 감성 교육적 가치의 면을 적절히 뒷받침한다.

이로써 보면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는 텍스트 자체가 지닌 교육적 가치의 국면도 값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학습자가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교육적 가치의 국면에서 보다 풍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국면이든 학습자 자신이 텍스트 해독과 음미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련의 지적·정서적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적 감수성을 확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학 교육은 문학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아 가르치거나 문학작품들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상관물로서의 작품에 형상화된 인간과 그 삶의 방식을 학습자 스스로가 느끼고 깨우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교육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학습자의 문학적 체험, 즉 학습자가 작품에 실천적으로 개입하여 스스로의 언어를,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발견·획득·창조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점은 곧 오늘날과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대의 문학이 어떤 현재적 효용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문학 작품을 오늘의 내가 어떤 시각에서 수용·학습하느냐의 태도 문제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송강가사가 지닌 감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논의한 이 글은, 오늘날 건조한 지식 중심의 교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교육문화 형성에 나름의 의미를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송강가사가 가사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사문학의 감성 교육적 가치를 살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글은 이러한 교육적 구도와 전망을 확충하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論語』·述而篇

郭熙, 「畫意」, 『林泉高致』

李珣, 『栗谷全書』(영인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8.

鄭澈, 『松江全集』(영인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http://stdweb2.korean.go.kr>)

고영화, 「송강 시조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156면.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통권3호, 1992·봄, 53면.

노상우, 「감성담론과 그의 교육철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34권 1호, 교육철학연구회, 2012, 83~84면.

박영주, 「〈관동별곡〉의 시적 형상성」, 『반교어문연구』 5집, 반교어문학회, 1994..

박영주,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5집, 한국시가학회, 1999.

박영주, 「송강문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 『고시가연구』 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156~157면.

박영주·이지엽·최한선 편저,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3.

성무경, 「가사의 존재양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7, 67면.

신헌재, 「감성 소통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8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8, 253면.

염은열, 「고전문학 학습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

- 학과 교육』 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37~38면.
- 염은열, 「표현 교육의 자료로서 본 <관동별곡>」,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2000.
- 이형대, 「정철 시조의 감성 표현 양상」,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 蔣孔陽 지음·文一平 옮김, 『形象과 典型』, 사계절, 1987, 30·134·137면.
- 鄭寅普, 「鄭松江과 國文學」, 『陽明學演論(外)』, 삼성문화문고 11·삼성문화재단, 1972, 202면.
- 조태성, 『고전과 감성』,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17면.
- 최진원, 「송강시가의 풍류」, 『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출판부, 1986, 140·143면.
- 피터 덕슨 지음·강대호 옮김, 『修辭法』, 서울대출판부, 1979, 61면.
-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65면.
-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 『비평문학』 32, 한국비평문학회, 2009, 390면.

<Abstract>

A study on the emotion educational values of Songgang' Gasa

Park, Young-ju

This paper discussed emotion educational values of Songgang Gasa. This paper first examine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onggang Gasa and then examined the issue of values propos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m educationally. Emotions mean sensory sentiment accompanied by aesthetic thinking ability. Songgang Gasa's emotional characteristics are noticeable in the revealing of true emotions, fresh images, vivid sense of reality, sentimental sentiment, and sincere and desperate meanings. Songgang Gasa's educational values are to learn beauty of Korea, thorough self-perception, will of self-realization, creation of individualistic forms, consciousness sharing of experiences, expanded prospect of sympathy. Such discus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formation of new educational culture by bringing changes to educational environment centered on dry knowledge.

Key words : Songgang' Gasa, emotion, educational value, emotional characteristics.

투고일 : 2016년 1월 14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